

‘국보 11호’ 미륵사지 석탑 보수 18년만에 완료

국내 最古 석탑...4월 말 준공식 갖고 일반에 공개 익산시, 관광객 유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계획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석탑인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이 18년간의 보수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 일반에 공개된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금마면 미륵산 자락에 자리한 미륵사지 서쪽 석탑이 최근 가설덧집을 벗고 옛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다. 이 석탑은 향가 ‘서동요’ 주인공이자 백제 후기에 중흥기를 이끈 무왕(재위 600~641) 때 지은 미륵사를 구성한 세 탑 가운데 서쪽에 있는 것이다. 탑은 석재 2800여 개를 짜 맞춰 형태를, 석탑 양식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이 탑은 1400년을 지나면서 6층 일부만 남겨졌고, 1915년 조선총독부에서 붕괴 부분을 시멘트로 땜질해 응급 보수를 재조해왔으나 1998년 구조 안전진단에서 위험 판정을 받았다.

2001년부터 해체 작업에 들어간 미륵사지 석탑은 높이 14.5m, 6층 탑으로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2009년 심주석 해체과정에서 국보

급 사리장엄구 1만여점이 발견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비 230억원을 들여 석탑의 원자재와 부자재를 최대한 재사용해 탑 6층까지 보존, 보강, 수리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석탑 외부에 설치한 가설덧집과 주변 정리 작업까지 최근 마무리했다.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4월 말 미륵사지 석탑 보수준비 준공식을 열 예정이다.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미륵사지 석탑 보수준비를 마치고 일반인에게 공개됨에 따라 전북과 익산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익산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미륵사지 석탑과 왕궁 5층 석탑 등 익산지역에 분포돼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특화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미륵사지 석탑이 보수와 정비에 완료됨에 따라 다음달 30일 정부 주요 관계자, 문화재청장, 정치인, 도민과 시민들을 초청해 낙성식(落成式)을 열고 다양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석탑인 전북 익산 미륵사지 서쪽 석탑(국보 제11호)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다. 2001년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 석탑은 그동안 가설 덧집에 둘러싸여 있어 야외에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노기환 전북도청 학예연구사 제공〉

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미륵사지 석탑을 보수·정비하는 오랜 기간 많은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없어 매우 안타까웠다”며 “18년

동안 보수와 준비를 끝마치고 다음달 관광객과 일반인들에게 전격 공개된다”고 밝혔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새만금 재생에너지 인프라 조성 사업 속도

전북도·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연구기관 유치 협약 체결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최근 군산시 오식도동 청사에서 전북도, 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연구기관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후 연구기관들과 체결한 첫 협약이다.

협약식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송하진 전북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

장,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정동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등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 전지 등의 연구시설 및 실증센터가 설치되면 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가 조성에 탄력을 받고 관련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 관련 국가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 새만금에 국가중심 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해 기업 수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유일의 산업기술 분야 종합시험인

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새만금에서 수상태양광 시험인증, 성능 평가, 연구개발, 기술지원 등을 실행한다.

새만금개발청은 부지 임대, 공유수면 사용 인허가를 지원하고, 새만금개발공사는 부지 매입면허와 관련한 행정을 돕는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관련 예산 및 행정 사항을 맡는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연구기관 유치 및 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 용역, 국가예산 확보, 기업유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 도지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국내 관련 산업의 전진기지 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근석 기자 nogusu@

순창 ‘작은목욕탕’ 주민 사랑방 역할 특출

시골 지역 이용객 지난해 4만8000명 넘어

목욕하러 시내로 나가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시골지역에 설치한 작은목욕탕이 주민 사랑방 역할을 특출히 하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해 작은목욕탕 이용객이 4만8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중 노인이 78%를 차지했다.

군은 2009년 동계면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면 지역 10곳에 작은목욕탕을 마련했다.

160㎡ 미만의 목욕탕에는 전담공무원이 있고, 일터에 나가는 농촌 주민을 위해 새벽부터 운영한다.

이용료는 만 65세 이상이 1000원, 이의

주민은 2000원, 장애인·생계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는 무료다.

작은목욕탕은 이용료가 일반 목욕탕보다 싸고 접근성이 좋은 데다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 주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이용객 안전을 위해 12일까지 작은목욕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소화기 비치, 기계·전기설비,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확인하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 대처와 안전수칙 교육도 할 방침이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남원시, 저소득층 주거 안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남원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희망자를 모집한다.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법정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충족여부를 검증받은 후 선정된다.

선정된 입주자에게는 최대 6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이 지원된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최대 300만원과 월 10만원 이내의 월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3000가구다.

전북에는 182가구가 배정됐고, 이 중 남원시에는 9가구가 지원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와인 마시며 황홀한 서해낙조 감상...

목포 1박2일 관광 상품 4월부터 흡소핑 판매

국내 최장의 해상케이블카를 타고 와인을 마시며 서해낙조를 감상하는 ‘황홀한 목포로의 여행’이 현실화 된다.

이 여행 상품은 1박 2일 코스로 오는 4월 초 흡소핑을 통해 판매된다.

무엇보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포를 팔아먹겠다”고 강조한 이후 나온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목포시는 7일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척 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남장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1박 2일 목포 관광 상품이 개발돼 흡소핑을 통해 판매된다”고 밝혔다.

흡소핑 판매는 4월 초 3일간 5회 방영되고 방문은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되는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상품의 모집인원은 1000명~2000명으로 상품가격은 15만원이다.

이 여행상품의 주요 코스는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해 유달산(노적봉, 조각공원), 근대역사문화 공간(순해원 거리), 갯바위 문화타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보리마당, 연희내 슈퍼 등 5-6개 코스다.

이를 위해 흡소핑·여행사 관계자 등이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런칭 답사를 실시했다.

특히 미디어마케팅 전담팀이 신설된 이후 비 예산으로 ‘목포 관광상품 첫 흡소핑 판매’라는 성과를 이끌어내 의미가 남다르다는 게 관광과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목포시 미디어마케팅 담당은 “여행사 인센티브로 1인당 1만원이 지급된다. 주변서도 행복한 인센티브”라면서 “런칭 결과 반응이 좋아 프리미엄 상품 개발도 조만간 선보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현대삼호중, 겨울배추·천일염 구매 앞장

가격폭락 산지 폐기 등 지역 농산물 소비 진작

현대삼호중공업이 가격폭락으로 산지 폐기를 하는 겨울배추와 천일염 등 지역 농산물 구매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6일 농협은행 해남군지부 연합사업단에서 ‘월동배추 소비 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사진)

협약식에는 회사와 노동조합, 현대그린푸드,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해남 겨울배추 7t가량을 사 시내 식당에서 배추를 이용한 나물과 찜, 국 등 반찬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남은 전국 겨울배추 재배면적의 70%를, 가을배추도 15%를 차지하고 있다.

겨울배추 값은 2014년 폭락 사태 이후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5년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인다.

가을배추 풍작으로 잔여량이 많은 데

다가 최근 겨울배추 출하 시기가 겹쳤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겨울배추의 가격 안정을 위해 판매촉진 활동과 산지폐기도 진행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회사에서 하루 약 1만5천명분의 음식을 제공하는 만큼 이번 겨울배추 구매가 판매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삼호중은 지난해 연말에도 신안 천일염을 임직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1천여 포대를 구매했다.

최근에는 영암 소재 지역사회복지시설인 목포광명원에서 생산된 무화과즙 9500개를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여수에서 최고 요지 땅 -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주시 봉강동, 대지 431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 분할매매가능
- 대출-20억5천만원, 시세/감정가-약 40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상담후 결정

주인직매. 010-3627-8282

